

특집 현대문학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여성수난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Les Orchidés Rouges de Shanghai*를 통해 본 위안부의 삶과 제국주의

박영혜

특집 현대문학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여성수난

#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Les Orchidés Rouges de Shanghai*를 통해 본 위안부의 삶과 제국주의

박영혜

## 국문초록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은 한국인 종군 위안부의 험난한 인생역정을 그린 소설이다. 프랑스 로렌지방 태생인 작가 줄리엣 모리요가 쓴 두 번째 한국관련 소설로서 작가는 한국에서 5년간 교편을 잡았을 뿐 아니라 지식층과의 교류와 함께 빈민층과의 접촉도 경험하였다고 한다. 95년 서울을 다시 찾을 때, 만난 한 과일 행상 할머니의 이야기는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의 주요한 모티브로 발전하게 된다. '문 할머니'라는 그때의 그 정신대 할머니에게 작가는 이 책을 헌납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와의 뒷골목 식당 어느 골방에서 밤새워 얘기하며 할머니의 잔혹한 정신대 경험을 들으며 그때부터 정신대 역사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쓴 소설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37년 상미라고 하는 14살의 소녀가 퇴교길에 일본군에게 끌려간 후 만주의 위안소로 향한 수십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강제 징집된 "정신대"로서 아시아의 일본 군대 속에 설치된 폐쇄된 공간, 즉 위안소의 지옥을 겪게 된다. 상미는 매일 30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끔찍한 성적노예 생활, 잔인함, 더럽혀진 명예, 가족과의 결별, 모욕과 치욕 등으로부터 살아남는데는 타고난 용기와 강인함 외에도 언젠가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겠다는 은밀한 희망이 한 몫을 했다고 한다.

주요어: 일본 제국주의, 정신대, 위안부, 성적노예생활, 문할머니, 가족, 아버지, 여성의 삶

## 1. 서론

한국인 종군위안부의 험난한 인생역정을 그린 소설『상하이의 붉은 난초들』이 출간되면서 화제의 소설작가가 기자출신, 프랑스 여성작가 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작가 줄리엣 모리요 (Juliette Morillot)는 왜 한국 위안부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줄리엣 모리요는 로렌지방의 바르르퓌에서 태어났다. 기자와 작가로서 특히 한국학의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타고난 어학능력으로 수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파리의 국립 동양어학교에서 러시아어, 체코어, 한국어, 일본어 등을 배웠고 다른 한편으로 루부르학교에서 예술사를 전공하였다.

한국에서 5년간 교편을 잡았으며 지식층과의 교류와 함께 빈민층과의 접촉도 경험하였다. 한국을 떠난 후에도 주기적으로 3~6개월씩 다시 돌아왔으며 한국의 삶의 모든 측면을 알기 위해 절간에서 또는 농촌에서 일하였을 뿐 아니라 5개월 동안 기생집에서 살아보는 시도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독특한 경험으로 줄리엣 모리요는 한 나라의 강력한 인상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 부분이 항상 그녀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작가 모리요는 오늘날 손 꼽을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한국전문가속에 들어갈 뿐 아니라, 많은 프랑스와 한국 신문의 기고가로서,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초대석의 출연자로서, 기업 회사 자문 또는 파견인으로서, 그리고 대학의 강사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작품을 소개하자면 처음으로 소설을 쓰겠다는 욕망이 낳은 작품『구름언덕의 궁전』(운현궁을 풀어서 Le Palais de la colline aux nuages) (Plon출판사, 1993)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소재로 했으며, 이 작품을 시작으로 에세이집 『한국의 산, 무당 그리고 빌딩』(Autrement출판사, 1998), 문화소개서 『한국의 모든 것, 밝은 아침의 나라』(Souffles출판사, 1998), 그리고 여러 단편집 『사타아와피의 딸 아마』(1999), 『해녀, 바다의 딸』(2000) (Bayard

Presse출판사.)등이 있으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은 두 번째 소설로서 프레스 들라 시떼(Presses de la Cite)출판사에서 2001년 4월 출판되었다.

## 2. 한국 할머니와의 만남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은 실제 있었던 일을 그린 소설이다. 그러나 굉장한 사랑의 노래로 그 배경에 향취와 소리와 색깔이 있어 우리들로 하여금 미지의 신비스러운 동양의 혼란스러운 역사 속으로 갖다놓는다.

1937년 상미라고 하는 14살의 소녀가 퇴교 길에 일본군에게 끌려간 후 만주의 위안소로 향한 수십 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강제 징집된 “정신대”로서 아시아의 일본 군대 속에 설치된 폐쇄된 공간, 즉 위안소의 지옥을 겪게 된다. 상미는 매일 30명의 군인을 상대해야하는 끔찍한 성적노예 생활, 잔인함, 더럽혀진 명예, 가족과의 결별, 모욕과 치욕 등으로부터 살아남는 데는 타고난 용기와 강인함 외에도 언젠가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겠다는 은밀한 희망이 한 몫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프랑스 여성이 왜 이토록 **참혹한** 우리의 정신대 역사를 소설로 소화해내려는 시도를 했을까? 사실 모리요는 꽤 한국에 호감을 지닌 작가이다. 수년간 한국의 삶을 체험하였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체험을 유지하고 있는 그가, 95년 서울을 다시 **찾았을** 때, 한 과일 행상 할머니를 만난다. 그리고 이 만남은 훗날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의 주요한 모티브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작가는 ‘나의 한국 할머니’로 애정을 담아 부르기도 하는 ‘**말 할머니**’라는 그때의 그 정신대 할머니에게 이 책을 헌납하고 있다.

작가는 이 할머니와의 뒷골목 식당 어느 골방에서 밤새워 얘기하며 할머니의 **잔혹한** 정신대 경험을 들으며 그때부터 정신대 역사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작가와의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과 이 특별한 만남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e got talking and met up one night in the backroom of a small restaurant. She entrusted to me the story of her life—a heartrending one. Her torment, narrated in simple, tragic terms. This woman had been one of the hundreds of thousands enrolled by the Japanese to become prostitutes at the service of the Imperial Arm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Korea’s long history is strewn with suffering, wars and invasions; but this woman’s story —told so openly— was monstrous to the point that I asked her to stop. I feared that she might unveil misery that was simply too intimate, to me — a stranger and a foreigner. At the break of day, as the first noises of dawn were heard in Seoul, this old woman took off her dress to show me her body. A splendid one, refined by the years but covered in shameful scars, made by cigarettes or sabers.”

(우리는 어느 날 밤 작은 식당 뒷방에서 만나서 밤새워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가슴이 찢어질듯한 인생 이야기를 나에게 했다. 그녀는 단순하고 슬픈 말로 고통을 이야기했다. 이 여인은 세계 2차 대전동안 제국주의 일본 군대에서 몸을 팔기 위해 일본인에 의해 등록된 수만명 위안부 가운데 한 분이였다. 한국의 긴 역사는 고통, 전쟁및 침략으로 어수선했다. 그러나 너무 솔직히 말한 이 여인의 이야기는 내가 그만 하라고 했을 정도로 끔찍했다. 나는 두려웠다. 외국인이자 이방인인 나에게 너무 단순하고 친밀하게 그 고통을 밝혔다. 서울에서 새벽의 첫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새벽녘에 이 늙은 할머니는 옷을 벗고 몸을 보여주었다. 담배나 사브르로 된 수치스런 상처들로 덮여있으나 그 세월 때문에 멋진 몸은 눈부셨다.)

제발 그만 하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처참한 이야기는 새벽녘

에 이르러 치마를 벗고 자신의 몸을, 몸에 각인된 강탈의 흔적을 보여주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그 몸이 어떠했던가? 비록 세월이 지나 아물긴 했어도 치욕의 상처, 담뱃불과 군도로 찢긴 흔적들로 뒤 덮혀 있었다! 너무나 끔찍하면서도 경이로운 충격이었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모든 자기의 삶과 정신을 다 드러내 보인 셈이었다. 그리하여 그 만남은 그렇게도 내밀하고 인간적인 만남이 되어 버렸고 작가인 모리 요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쓰게 하였던 것이다.

작가가 말하듯이, 작가와 한국?한국인과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이고 첫 작품이 비극적인 한국인, 명성황후의 삶을 되살리는 것이라면 이번 작품은 또 다른 여성의 삶, 육체를 강탈당한 한국여성의 삶을 되살린 것이다.

### 3.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의 이야기 구성

문 할머니의 얘기를 토대로 쓴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은 ‘상미’를 주인공으로 하는 일인칭 시점으로 전개된다. 1937년 14살의 상미는 방과 후 학교를 나시다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징신대에 끌려간다. 이후 상미는 십수년간 센양에서 상하이로, 싱가포르에서 히로시마로 끌려 다니며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경험을 하지만, 타고난 용기와 강인함으로 생면부지의 프랑스인 아버지의 흔적을 찾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간직한 채 살아남게 된다.

주인공 인물은 “나”라고 말하는 김상미로서 1923년생, 나오미 가와모토(Naomi Kawamoto) 조센 씨 2444번. 아버지는 프랑스 외교관 그르니에(Gresnier) 어머니는 민자로 기록된다. 양반 가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민자는 발랄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미국 유학의 꿈을 버리는 대신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우도록 허락 받았다. 프랑스 외교관과 자기 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부여 양반 가문의 외할아버지에 의하여 혼담이 있던 김씨 가문에

임신한 딸을 시집보내며 태어날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라고 했다. 그리하여 호적상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의붓동생 교코(Kyoko)와 함께 자란 상미이다.

실질적으로 계부나 마찬가지로 아버지 김호일은 대학교수로서 쉽게 개명하여 가와모토라 하였고, 애국자이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상미는 좋아하였다. 1929년 8월 아버지와 관계 있는 일본 매춘부의 익사 사건을 계기로 목포로 전학 보내어졌다. 이 무렵 외조부로부터 출생의 비밀을 알게되었다. 호감을 보여온 나가타(Nagata) 선생은 만주국으로 옮겨가 버렸고 교실에는 위안부 모집이 나 붙었다. 1937년 상미소녀는 14세의 나이로 강제징집 당하였고 일본군의 후지와라(Fujiwara)사령관 이 그녀에게 가하는 첫 폭력의 경험, 카르마(Karma) 위안소에서 성폭력 장면 등에 대한 처절한 묘사가 있다. 친구 미키코(Mikiko), 가네코(Kaneko) 등과 함께 하루에 20, 30명의 일본군을 받는 위안부생활을 체험한다.

얼마 후 상하이에서 나가타 선생과의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일본제국주의의 총복 나가타는 고위직 일본인에게 상미의 육체를 상납하게 되고 상미는 나이든 중국가정부 아맹에게서 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된다. 나가타의 유산 결정으로 상미는 딸 싱후를 사산한다.

그 후 나가타와 헤어지고 6개월동안 “클럽 626”의 호스테스로 있다가 다시 후지와라를 만나게되는데 이 때 대동하고 있던 일본인 정부 오끼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1939년 12월 만주 북쪽 하얼빈의 핑팬캠프로 이동하였으며 이 곳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정책에 의한 생체실험, 미래 무기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었다. 다카하라 경비원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이웃 마을 무화오(Muhao)에 있는 동료위안부 에페 드 자드(Epée de Jade)가족에게 그녀의 죽음을 알린다. 그 집의 남동생 라오 방(Lao Bang)은 모택동 추종자인 그를 따라 후낭(Hunam)으로 간다. 상탄도시에 페스트가 창궐하여 라오 방은 사망하게되고 다시 라오방의 친구들을 따라 창킹행 그룹에 끼여 소속 움직이던중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다시 일본인 손에 잡히고 만다.

상미는 하이난(Hainan)섬으로 보내지고, 정글 전 훈련부대에서 위안부 일을 하는데 그녀의 외국어 능력의 덕택으로 성적 노예일 대신에 번역 일을 한다.

1947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식민주의의 잔학상을 말레시아 처녀림에서의 집단학살, 폭력 등을 목격한 상미는 군인들과 함께 이동 중 실신하여 쓰러진다. 그대로 버려진 상미를 오끼가 추적 끝에 데려오고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한다.

까메로 산 속에 안주하던 오끼를 후지와라가 다시 불러 가고 상미는 보공원 제조공장에 일자리를 찾는다. 몇 달 후 오끼가 보낸 독일인 랄프 되베리츠(Ralf Däeritz)가 상미를 후지와라에게서 벗어나게 해준다.

싱가폴에 안착한 상미가 다시 나가타 곁에서 안식처를 되찾고 그의 높은 지위가 그녀를 후지와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후지와라는 자바의 씨랭부대로 보내졌다.

1945년, 상미는 후지와라의 소포를 받는데 그 속에는 오끼의 손가락과 나가타의 편지가 들어있다. 나가타의 도움으로 나가사끼의 어느 공장에 취직되어 언덕을 깎아 옮기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던 상미는 나가타를 통해 연락된 되베리츠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의 주선으로 상미는 프랑스인 아버지를 찾겠다는 희망을 가진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어, 존재를 몰랐던 딸의 소식에 그 곳으로 갔던 아버지는 결국 희생이 되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상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앓은 추억만 남게된다. 상미는 원폭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갓난아이를 입양하여, 딸 기미코의 어머니가 된다.

되베리츠는 새로이 어머니가 된 상미를 다시 찾아 도쿄에서 결혼하고 1946년 1월 28일 일본을 떠나 세 가족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한다. 랄프는 인쇄소에 교정공으로 상미는 번역사로 일하고 있던 중 다시금 운명은 행복을 빼앗아 버려 랄프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그 이후, 상미는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은 욕망으로 1959년 10월 20일 한



국으로 돌아오나

어머니의 미친 모습을 보고 다시 떠나게 된다. 나가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가타의 부인을 방문하였고 그때 나가타의 자살 사실을 알게 된다. 2차 대전 후 상미는 불의, 정의가 부재하는 사회상에 충격을 받고 아시아의 사형집행인들이 추적되지 않고 활개치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시모노세끼의 한 공원에서 후지와라 사령관 모습을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복수를 결심하여 그를 죽인다.

딸 기미꼬의 권유로 딸과 함께 파리에 가서 몇 년 동안 국제회의를 통해 일본이 자행한 성적 노예, 착취를 고발하였다.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 투쟁하고, 국제적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 소원이 할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는 일인데 38선 위 북쪽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모든 회한이 다 사라지는 일이 닳았다. 1996년 “희망의 딸” 기미꼬가 저 세상으로 갔다. 딸의 죽음 이후 상미에겐 고통과 불행의 기억만이 남는다. 인생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 악몽 같은 기억도 앗아가 버릴 수만 있다면...

상미는 이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

#### 4. 여성의 육체와 제국주의: 역사적증언

##### 1) 육체적 강탈과 일본제국의 잔혹성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은 분명한 역사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점에서 김상미의 이야기는 남동 아시아의 역사의 많은 순간들을 환기한다. 명백한 사실참고가 극적인 반세기의 표적을 남긴 몇몇, 중요 사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일본에 의한 한국 강점,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 진주만과 함께 2차 세계대전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가 환기되었다. 그

러나 독자와 김상미 사이에 설정된 가까움은 물론, 역사책의 거리감을 방해한다. 가까움은 반대로 더 풍성하고 더 인간적인 것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 소설은 결국 인간들의 역사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그러므로 더 이상 객관화하는 이름과 날짜에 관한 일이 아니라, 더 생생하고 가끔 격렬한 일종의 진실이다. 역사는 그러므로 얼굴을 지니고 있고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는 더 예민하게 한다. 역사는 더 동등하게 책임지운다. 왜냐하면 사형집행인 또한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 역사적 진실의 문제를 그렇게도 가혹하게 지적하고 있는 마지막 몇 페이지의 조명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이 문제가 근본적임을 이해하게 된다.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존재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얻는 긴급한 것은 모든 문제가 희생자들의 여전히 고통스러운 얼굴이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오만 팔 천명 이상인 이 얼굴들만이 가장 나쁜 잔혹성의 살아있는 증인이며 14살에 가족과 조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김상미는 젊음을 갖고 있지 않던 무죄한 다른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의 예일 뿐이다. 성의 노예로 종속되어 그녀는 처녀성을 뺏기고 자신의 몸을 어린이의 넓적다리 사이로 계속 밀려드는 일본군의 정육의 집적소로 삼아야 했다. 결국 일본에 의해 성적 대상의 유일한 존재로 축소되어 그녀에게 주제로서의 그녀의 삶을 인간 존재로서의 그녀의 삶을 거부당했다. 만약 사람들이 그녀를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그녀에게 죽음의 안식을 주지 않고서이다.

그러나 비인간화, 인간존엄을 뺏는 이 방법은 불행하게도 반복되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히로시마의 공장에서 일본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새로운 노동자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유니폼을 입힌 모욕적인 의학적 방문이후에, 상미는 상놈, 무존재가 된 느낌을 느꼈다. 그러나 아마도 일본이 그녀로부터 그녀의 한국이름을 빼앗을 때마다 이미 그녀는 상놈이었다. 존재의 이러한 부정은 등록번호의 사용으로 특히 설명된 듯하다. 2444번은 오랫동안 상미의 몸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사육되는 동물들이 지나는 번호처럼 한 마리 동물로서 그녀는 전쟁 무기를 실험하는 핏펜 캠프에 실험실의

모르모트(실험대상 동물)가 될 것이다.

## 2) 끝없는 제국주의: 문화정체성의 강탈

개인적인 정체성의 강탈과 강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의 강탈과 강간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한국의 모든 상징적 **풍요함과 문화적 특수성을 빼앗으려 하였다**. 일본인들이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위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적어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화’라는 단어는 이 점에서 매우 명백하다. 일본인 점령자는 그 속박 아래 있는 민족에게 그 자신의 문화에 속해 있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 변모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변모는 강요된 것이다. 변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변모를 반대하려 하는 모든 이들이 심한 처벌을 받는다.

문화 행사도 역시 속박 당한다. 사실 한국사람들에게 평소의 잔치로 추석을 새지 못하게 요구했다고 쓰여있다. 추석이 가장 중요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나치게 한국적인 모든 것은 탄압 받아야 했다. 역시 일본 직물의 원색들만이 서울 거리를 가득 채우고 전통적 흰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았다. 물론 이 단순한 색들이 문화적, 동일성의 상징을 구성한다. 흰색 옷을 입은 가련한 사람을 죽도록 때리는 군인은 그의 옷을 유지하는 것이 명예에 관계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본인들의 비난 어린 처벌들에 맞선 상미의 할아버지처럼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민족은 그것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거부당할 때** 더욱 더 심각하게 공격당한다. 한국역사에 대한 수업을 빼버림으로써 일본인들은 한 민족의 뿌리를 뽑아 놓는다. 이것은 그들은 이 민족의 기억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 역사대신 그들의 역사를, 제국의 역사를 교체한다. 다양한 교체의 이러한 놀음은 오직 한가지를 지향한다. 즉 한국을 망각 속에 빠뜨리는 것.

## 3) 제국주의의 노예들의 맹목적 폭력과잉

그러나 강탈은 충분하지 않는 듯 보인다. 거기에 또 다른 범죄적 만족을

뒤틀어야 한다. 즉 모욕하고 한 영혼을 상처받게 하고 의식을 고문하는 쾌감. 왜냐하면 만약 위에서 우리가 일본인들이 그들의 희생자들의 비인간화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형집행인들은 또한 고문할 영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희생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명예에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후지와라 사령관은 이 점에서 탁월하다. 상미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상미에게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던가, 일본말 하이카쿠를 부를 때에도 희생자들은 자주 일본찬가를 부르거나 시민의 끔찍한 맹세를 반복하도록 독촉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김상미가 우리에게 묘사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약해 보인다. 그들의 야만적인 힘은 외관일 뿐 인 듯하다. 우선 제국에 충성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개인적 결정에 이끌려 행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김상미는 우리에게 황제의 의지들을 맹목적으로 실행하는 약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내고 있다. 우스꽝스런 작은 사람들. 인간적 감정을, 상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듯한 나가타선생님의 의문 없이 복종한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든다.

차가운 범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이 단지 자제할 줄 모르고 그들의 분노를 참을 줄 모르기 때문에 야만성의 과잉에 자신들이 이르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다른 군인들은 여전히 큰 어린이들일 뿐이었다. 마치 전장으로 떠나기 전, 그의 어머니를 한탄하는 젊은 요시(Yoshi)처럼. 물론 이 모든 것이 야만적인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위험한 단순화들과 일반화들을 피하게 한다. 게다가 김상미의 가장 좋은 친구 오끼(Okie)는 일본인이다. 그녀의 아버지 팔에서 어린 소녀인 그녀가 본 창녀와 마찬가지로 오끼 또한 희생자이다. 같은 운명을 나누어 가진 모든 이 여인들은 자매와 같다.

#### 4) 아버지의 나라, 프랑스 조국

일본이 줄리엣 모리웃의 소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위험한 검은 그

늘의 자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프랑스는 김상미에게 도처로 확산되어 희망의 빛을 비춘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 유럽나라를 연결한다.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사실 그의 국적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의 비현실”로서 존재할 수도 있었을 어떤 것. 말하자면 상미가 행복할거라고 생각하는 결핍된 삶을 상징한다. 물론 상상력만이 그녀가 아무 것도 모르는 아버지의 완전한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녀의 고뇌 속에서 상미는 그녀가 강화됨을 느낄 수 있는 목가적 세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 그녀가 일본인들에 의해, 자신으로부터 박탈당하면 할수록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 애쓴다. 마치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파여진 이 공간을 절대적으로 매워야 하는 것처럼.

미지의 언제나 그녀에게서 도망치는 이 아버지는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런 그녀의 삶 속에 일시적 평온상태의 공간, 도피의 공간을 발견하도록 허락한다. 게다가 그녀의 딸이 결혼한 뒤 망명을 선택한 곳도 프랑스이다. 그녀가 전혀 볼 수 없었고, 유일한 흔적마저 원자폭탄으로 사라진 아버지, 연인이자 달콤한 남편이었지만 죽음이 그녀로부터 아아간 라오방 현실의 삶은 김상미로부터 긍정적 형태아래 남성으로 살아갈 모든 가능성을 빼앗아가기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삶은 언제나 그녀로부터 남성으로부터의 사랑을 박탈할 것이다. 부성애이든 정열적 사랑이든 간에 실제 삶 속에서 남자들이 그녀에게 준 것은 폭력과 잔인함뿐이었다.

## 5. 여성의 역할과 관계

### 1) 어머니의 문제

그러므로 상미가 포근함과 애정을 찾은 곳이 여성의 테두리 안에서임에 분명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불행한 삶의 동반자인 오끼(Oki)와 육체적

사랑을 나누기조차하고 있다. 여하튼 그녀에게 있어 여성과의 첫 번째 관계는 이미 단순하지 않은 관계였다. 약간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등장하는 그녀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행복하다거나 생산적이었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상 민자는 그녀의 딸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이기를 포기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 대해 생물학적인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다. 김상미는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부족하였던 모든 점을 끊임없이 관찰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머니 같지 않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딸을 비인간적인 영역으로 몰아내 버린다. 이것이 어쩌면 반복되는 도둑질(육체의)과 공간으로 점철된 상미 운명의 첫 번째 신호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에 의해 버려진 이 여아는 다양한 형태의 대리모를 만나게 된다: 그 은인들 가운데 그녀가 일하게 되는 위안소의 원장들과 그녀의 할머니도 포함이 되며, 이러한 할머니의 영상은 코튼 밀의 나이든 중국 여인인 아맹이라는 인물로 투영된다. 자신이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으므로 그녀는 후에 그녀의 딸에게 자신이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줄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또 한번, 그녀의 내부에서 이러한 사랑과 기쁨의 감정을 일깨워줄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잃게 된다. 우선 강제 유신에 의해 자신의 뱃속에 있었던 싱휴를 잃게 되며 그녀의 혈육은 아니지만 원자탄에 의해 폐허가된 공장에서 발견한 기미꼬마저 잃게 된다.

## 2) 여성들의 유대

육체의 도난이 상미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를 완전해 망쳐 버린 이후, 무엇이 남았는가 살펴볼 일이 남았다.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순수하고 우호적인 인간의 형태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누구에게 상미를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녀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랑할 남자도, 사랑을 줄 아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가 성공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미끼꼬, 가네꼬, 오끼와 같은 사람들이며, 그들 모두가 여인이라는 점 그리고 이

젊은 여인들 모두가 상미 만큼이나 불행한 운명을 따랐어야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이와 같은 여성 동지애에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물론 이 소설을 여성학 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지라도, 이와 같은 분석의 실마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유사한 삶의 행로를 따라온 이 모든 여성들의 관계가 이해와 동조 그리고 협조를 접목시키는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녀들이 모두 한국을 떠났다는 것과 감금에서부터 유발되는 소외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체 적인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그녀들을 살아 남도록 하는 것이다. 피곤함, 고통,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곳곳이 버터나간다; 그녀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 3) 오늘날의 위안부

수많은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이 모든 여성들에게, 비록 반세기가 이미 지난 시점이지만, 존경심을 표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녀들이야말로 위안부의 존재를 거부하는 비양심적인 일본 정부가 현재 행하고 있는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도둑질의 희생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 6. 결론

에필로그 부분에서 정신대 출신의 여주인공 상미가 토로한다. 96년 운명적으로 히로시마 병원에서 맺어진 딸 기미꼬의 유골을 받아들이고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 속으로 나설 때 50년 삶에 있어 처음으로 울었다고 했다.

“J’ai pleuré les larmes retenues depuis tant d’années, celles qui jamais

n'avaient voulu couler. J'ai pleuré mon desespoir, mon impuissance plus que la disparition de ma fille. J'ai maudit les hommes qui avaient fauché ma vie á l'aube de ses premiers bourgeon, ces mées hommes qui avaient réuit mon peuple en esclavage, avili des milliers de femmes, massacré autant d'hommes et d'enfants.”(pp.487~8)

그토록 수많은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이 실종된 슬픔이상으로 내 절망과 무력함에 흐느껴 울었다. 난 내 인생이 막 시작하려는 즈음에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남자들을 저주했다. 이들은 바로 아이들과 남자들을 희생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을 천하디 천하게 만들어버린, 우리 국민을 노예 상태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히로히토라 불리는 작은 황제의 맹목적인 침략 명령에 따라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들의 속박에 항거하는 작들은 모두 짓밟아도 된다는 그런 자만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피 흘리고 모욕당한 내 육신 속에서, 짓밟힌 내 꿈속에서 이들에 대한 거의 폭력적인 증오심의 뿌리를 찾는다. 전쟁(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0년이 넘은 지금도 피가 솟구치는 듯한 느낌과 내 빌 아래로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 없이는 단 한 명의 일본인과의 마주친 적이 없다. 결국 시간은 아무 것도 치유하지 못했다. 고통도, 원한도.

결코 제대로 자신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빼앗긴 시간과 육체가 기술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읽혀질 수도 없었던 그녀 인생의 장서는 겨우 어린 시절 서울에서의 기억, 파리에서 딸과 함께 보낸 노년의 기억뿐이라고 했다. 상미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망각의 심연 속으로,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듯 삶의 악몽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J’attends ce jour ou, enfin, je serai liberee de ce cauchemar...”(p.491)

난 오늘도 기다려본다. 이 지옥에서 자유롭게 해방되기를...



패트릭 모리스 (Patrick Maurus) 교수는 모리요의 작품의 한국적 주제 선정에 관해 근대 한국의 민족주의의 시각을 너무 부각시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운현궁』에 일본에 의해 살해당한 『상하이의 붉은 난초』에서 같은 맥락으로 20만의 한 사람인 종군위안부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상송기류의 한국의 민족주의 여성담론까지 담은 작품은 시대적 흐름을 너무 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표지 그림이 품위가 없을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스인의 입으로 한국적 담론이 이루어지며 소설적 작품이라기 보다는 한국민족주의를 너무 고무 찬양하는 설명조의 담론이 역사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 너무 많은 비중으로 이야기 자체를 능가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Mais l’auteur veut tout dire, et le discours ne cesse de déborder le réit. Ainsi que l’exige la tradition, nous nous sommes prosterné trois fois... (p.20), n’avaient-elles pas eu autrefois les pieds bandé en forme de boutons de lotus (p.106), la petite effaré qui déarque à Shanghai nous raconte tout de la guerre et des mentalité des Occidentaux (pp.155 ~ 231.)”

소설 작품으로서의 논의, 역사적 증언으로서의 논의,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제국주의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논의 등 다각적인 연구방향으로 열려있는 작품이다.

■ 필자 : 숙명여대 교수

참고문헌

- Morillot, Juliette, *Les orchidées rouges de Shanghai*, Presses de la cité, 2001, Paris
- *La Corée: tout sur le pays du matin clair*, Souffles, 1988, Montrouge
- *La Corée: chamanes, montagnes et gratte-ciel*, Autrement, 1998, Paris
- Interview, *Les orchidées de Shanghai* by Juliette Morillot, Presses de la cité, April 2001.
- Maurus, Patrick, 'Juliette Morillot, Les orchidées rouges de Shanghai' Tan'gun(Revue Internationale d'Etudes coréennes), Automne 2001, Cric/Racine, Paris
- Women Times, '화제의책 종군위안부의 여정 그린 「상하이의 붉은 난초들」, '박이은경 기자, <site: www.iwamantimes.com>
- Yayori Matsui, 'Comfortwomen-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4th East Asian Women's Forum 보고서, Taipei, 2000.
- *Women in the New Asia*, 1999, Zed Books.
- McDougall, Gay, Final report on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1998. U.N.
- 한겨레 씨네 21 특집, '7년 동안의 진실 찾기, 이제 다시 시작이다.', 변영주 <site: www.hani.co.kr>
- Saïd, Edwar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Alfred A. Knopf, 1993.

Abstract

The Imperialism and A Comfort woman's life  
in *Les orchidés rouges de Shanghai*

Park, Young-Hai

This novel is intended to be a highly documented testimony on the suffering of thousands of women who was dragged off to the front, to serve in mobile or fixed brothels. The Heroine, Sangmi, in one of these women whose lives are ruined, sometimes even before their teens: who were taken at the school gates, women and who were shunned by a prudish and Confucian Asia after the war. The novel traces the steps of one of these women through Asia, put to fire and the sword during the triumphant Japanese invasion. A tale of love and friendship between the lines in a story of horror: a pure account of two people caught up in a torment that is not theirs. I think it's incidents like this – that bring human beings together irrespective of nationality or race – that helped my heroine, Sangmi, to survive. She also survived thanks to her hope of finding her father. The education of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ies and her natural gift for languages permitted her to escape her fate for a time by becoming an interpreter. The heroine follow till the present day her hatred of Japan, the country which is still reluctant to assume its responsibility for the inhuman and cruel treatment of these comfort women. She takes part in NGO movements for comfort women issues.